

부활의 시기와 죽은 자의 중간기에 대한 연구

김명용 ■ 교수 · 조직신학

서 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일까?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뒷바침할만한 성서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만약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면 전통적으로 신학의 종말론에서 언급하던 죽은자의 영혼의 중간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또한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가?

I. 부활의 시기

죽음에서 죽는 것은 인간(Der Mensch)이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도 바로 이 인간이다. 성서는 헬라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반쪽만의 지속적인 삶에 대해 긍정성은 표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육체 없는 영혼이 천상에서 산다는 표상은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은 어거스틴(Augustinus)에 의해 본격적으로 체계화 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의해 발전되었는데¹⁾ 이런

1) G. Greshake/J. Kremer, *Resurrectio Mortuorum*(Darmstadt : WissenschaftlicheBuchgesellschaft, 1986), pp.169-239.

영혼 개념은 성서에서는 낯선 개념이었다. 성서에 언급되고 있는 죽은 자의 영혼 개념은 죽음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인간을 지칭하는 대명사이지 헬라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반쪽으로서의 비물질적 영혼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성서의 인간관은 헬라적인 인간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전인(Der ganze Mensch)으로 보는 것이었다.²⁾ 그러면 죽음에서 이 인간이 죽는다고 할 때 그는 언제 다시 살아나며, 어떤 형태로 살아 있을까?

A.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의 바울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표현과 유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52).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의 변화임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0~21). 바울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은 죽음을 폐기시킴(고전 15:27)과 연계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전서보다는 상당히 후기의 글로 알려지고 있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마지막날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희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

2) 전인으로 보는 인간관과 관련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참고 할만한 책으로는 H. W. Wolff 저, 문희석역, 『구약성서의 인간학』과 R. Bultmann저, 허혁역, 『신약성서 신학』, A. A. Hoekema 저, 류준호 역, 『개혁주의 인간론』등을 언급할 수 있다.

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24).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마지막 날에 대한 희망은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많은 학자들에 의해 후기의 첨가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명백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 6:54). 디모데후서 2:18절에 의하면 미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예수의 부활과 죽은자의 미래적 부활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해 주고 있다(행 4:2, 23:6, 26:23).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생각은 신약성서 속에서 비로써 처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단 12:3)라고 언급하면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예고 하고 있다. 또한 이사야의 묵시적 말씀들 속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사 26:19)는 중요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사야의 묵시적 예언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사 25:8)이라는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의 사망을 폐한다는 마지막날의 예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이 폐해지고 죽은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다.

B.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부활이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주장은 최근의 상당수의 카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신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은 그레샤케(G. Greshake), 로핑크(G. Lohfink), 크레머(J. Kreme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임박한 기다

림, 부활, 불멸」(Naherwartung, Auferstehung, Unsterblichkeit)과 「죽은자의 부활」(Resurrectio Mortuorum)과 같은 중요한 책을 연이어 출판시키면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서 속에 정말로 죽음에서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의 부활 개념이 낯설겠지만 성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성서시대와 초대교회의 문헌들 속에도 이것을 입증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

1. 바울

바울의 글 가운데 죽음에서의 부활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본문은 고린도후서이다. 다음의 바울의 글을 살펴보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게 하려함이라(고후 5:1~4).

위의 글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장막집은 물론 우리의 지상의 육체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냐”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천국에서 얻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두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면 후자의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이의 대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문인데, 땅에 있는 장막집은

지상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육체가 아닌 막연하게 천국에서 사는 처소라고 생각하면 양자 사이의 대비관계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양자 사이의 대비라는 상식적 해석을 따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명백히 하늘에서 얻게 되는 하늘의 육체이다. 이것이 하늘의 육체라는 명백한 증거는 그 다음의 2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덧입는다는 표현이다. 이 덧입는다는 표현은 옷을 입듯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곧 하늘의 육체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덧입는다는 상징은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체를 입을 때 쓰는 전형적 표현이라는 점이다.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전 15:53)라고 언급하면서 마지막날 부활체를 얻을 때에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표현을 그의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표현을 유념할 때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³⁾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3절의 표현 곧 “이렇게 입음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것은 추정컨대 육체가 없는 영혼만으로서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일 것이다. 바울은 헬라적인 개념으로서의 영혼의 천상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천국에서의 삶은 육체 없는 벌거벗은 영혼만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강조는 4절에서 또한 반복되고 있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한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 역시 고전 15:54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킬 바 되리

3) 고후 5:1-4의 내용이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 것이라고 밝힌 중요한 주석으로 다음을 참고하라. J. Kremer, 2. *Korintherbrief*(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0); N. Wats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London: Epworth Press, 1993).

라”는 표현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새로운 육체를 얻을 때 사용하는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후 5:1~4은 새로운 하늘의 육체를 죽음에서 얻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다.

바울은 바로 이와같은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주와 함께 거하는”(고후 5:8) 삶으로 이해하고 이를 사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빌 1:23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은 이 고후 5:1~4의 본문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 이 두개의 본문을 연결시키지 않고 빌 1:23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아직 부활체가 없는 영혼만의 막연한 깨어 있는 삶 내지는 영혼의 그리스도의 품에서의 잠자는 상태로 규정하면 안된다. 또한 고후 5:1~4이 이 부활체를 덧입는 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점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상당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지만 이 주장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이 죽음 이후의 즉각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점과 고후 5:8절의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싶다는 표현 역시 죽음 이후의 즉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육체라는 소망을 바울이 고후 5:1~4에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퇴색되고 이 본문에서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얻는 시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면서 천상에서의 육체 없는 영혼만의 삶을 고집하는 것은 헬라철학의 영향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너무 깊이 존재했고 지금도 깊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고후 5:8의 “몸을 떠나”라는 표현이 헬라적인 영혼만의 삶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몸을 떠나”라는 표현은 지상의 삶을 끝낸다는 표현인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 천상으로 간다는 표현인 것이지 몸이 없는 영혼의 세계로 간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몸이 없는 벗은 자가 아닌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다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복음서

요한복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라는 죽음과 부활과 관계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요한복음 11장의 유명한 사건에서

예수께서는 부활을 역사의 마지막에 한정시키지 않고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과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다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이다”(요 11:24)의 말은 유대 묵시문학적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흐름에서 볼 때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는 슬픔을 참으로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마지막 날 부활이라는 가냘픈 소원을 수정시키면서 부활은 이미 현존하고 있고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게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과 함께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과 부활만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요 11:25)이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온다. 이 비유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눅 16:22)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고통이 지극히 육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눅 16:24). 이 본문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부자의 육체적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고통이 부자의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육체적 묘사에 불과하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같은 강변은 다음의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9~30).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지옥에 던져지는 몸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은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몸이 지옥으로 가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이와같은 반문은 헬라적 사상에 우리가 매우 친밀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나오는 반문이다. 이 본문은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의롭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던지운다는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 10:28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본문이 오랫동안 헬라적 의미에서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으로 보고 죽음 이후의 영혼만의 삶을 의미

하는 영혼불멸론의 전거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런 의미의 사용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느”이라는 표현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는 이 본문에서 영혼과 육체로서의 전체 인간이 지옥에 멸해짐을 말하고 있지 육체 없는 영혼만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 이때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몸과 구별되는 “나”(I)의 존재의 핵심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시야의 승천 5:10에 내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피부에 불과하다는 순교자의 장엄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악인이 내 몸을 해할 수는 있어도 나의 참된 내적 존재는 해할 수 없다는 말인 것이다. 마 10:28의 영혼 개념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나”(I)라는 존재의 핵심을 지칭하는 표현이다.⁴⁾ 제 6:9의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때의 영혼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영혼 개념이다. 성서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언급할 때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비물질적, 비육체적 영혼 개념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나”(I)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물론 이 존재는 지상에 있던 육체와는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없는 어떤 존재라고 상상하면 안된다. 마 5:29~30이나, 마 10:28의 예수의 말씀은 바로 이 영혼이 악인인 경우에는 그 몸과 함께 지옥에 던지운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눅 16:22의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는 육체 없는 영혼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갔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자의 음부에서의 육체적 고통은 거지의 천상에서의 육체적 즐거움을 충분히 상상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받는 거지의 위로(눅 16:25)는 육체 없는 거지의 영혼만의 반쪽 위로가 아닌,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양분하지 않고 이해한 인간 나사로가 받는 위로일 것이다.

눅 20:27~40에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수와 사두개인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⁵⁾ 우선 이 본문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눅 20:27) 사두개인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

4) 제4마카비 10:4도 참고하라.

5) 이 본문에 대한 좋은 주석으로 J. Kremer, *Lukasevangelium*(Würzburg: Echter Verlag, 1988)을 참고하라.

라”(눅 20 : 39)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 있다는 것이 예수의 답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눅 20 : 37~38)고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 예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은 이 예수의 말씀 외의 다른 문헌 속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제4마카비 7 : 19에 의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살아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제4마카비와 같은 순교자의 신학을 대변하는 책들 속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는 희망이 나타나고 있다. 레위의 유크 18 : 14에는 족장들이 낙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살아 있고 천사와 같이 되었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관점을 강력하고 있고,⁶⁾ 제3에녹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머지 의로운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제3에녹 44 : 7)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살아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의로운 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 쿨란 문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살아 있는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천사와 같은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IQS 4 : 6~8, 11~13, IQM 12 : 1~7). 제2에녹서에는 천사 미하엘이 주님의 명을 받아 에녹의 지상의 옷을 벗기고 천사의 영광의 옷을 입히고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 등장한다(제2에녹 22 : 8~9). 이렇게 해서 에녹은 광채가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제2에녹 22 : 10). 이사야의 승천에서도 이사야는 빛나는 왕관과 의복을 입고 일곱째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임이 예언되고 있다(이사야의 승천 8 : 14~15, 7 : 22, 9 : 18). 그런데 마 22 : 30에 의하면 부활 때의 의로운 자는 “천사와 같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눅 20 : 36에 의하면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

6) G. Greshake/J. Kremer, op. cit., p.131.

의 모습을 지칭하는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이 현재 천상에 존재하는 의로운 자들을 지칭할 때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점과 천상에 존재하는 의로운 자들에 대한 묘사가 매우 육체적인 특징이 강하고, 역사의 마지막 날 입을 영광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묘사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곳(일곱째 하늘)에서 나는 아담 이후로 부터의 모든 의로운 자들을 보았다. … 그곳에서 나는 에녹을 보았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육의 의복을 벗고 천상의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그곳에 서 있는 천사와 같았다”(이사야의 승천 9:6~9). 눅 20:27~40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배경을 유념해야 한다. 눅 20:27~40의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고 천상의 의복을 입고 부활해 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본문은 예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는 말씀이다. 낙원은 제 2예녹서 8:1에 의하면 셋째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고후 12:2에서 언급하고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과 이 셋째 하늘을 낙원(고후 12:4)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맥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눅 23:43의 낙원은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거처하는 침침한 거처나 땅 속의 어떤 장소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낙원은 천국이 아닌 어떤 곳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이 아닌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 역시 다시 사는 삶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닌 죽음에서 일어남을 가르치고 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기록 중에 죽은 의로운 자들이 부활해 있다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은 막 9:2~8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는데 그 옷이 손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흰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엘리야와 모세도 그 곳에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옷의 변화는 에녹이나 이사야의 승천 등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에서 세상의 옷을 벗기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옷을 에녹이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입힌 이야기와 유사한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한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레사케는 하늘에서 예수께서는 부활해 있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영혼으로 떠돌고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천상에서의 영혼만의 존재에 대해 반대했다. 막 9:2~8의 변화산 사건 역시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영혼으로 떠돌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면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막 9:2~8의 본문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보아야지 자연스러운 것이다.

3.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유대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부활 사상이 강한 책이라는 인상을 누구나 갖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동안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과 천년왕국의 도래와 “첫째부활”(계 20:5)이라는 표현 등은 마지막 때의 부활을 명백히 언급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의하면 이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계 6:9)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제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제단이라는 점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계 6:11), 곧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쉬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계 7:9은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흰 옷이라는 표현은 제2에녹서 22:8과 이사야의 승천 9:2 등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육체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천국에서 쉬거나 찬양하는 흰옷 입은 영혼은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육체 없는 영혼으로 파악하면 안된다. 이 영혼은 죽은 자를 칭하는 대명사로서의 영혼인데 이들이 입게 되는 흰옷은 완전한 구원의 상징이다. 제1에녹서 62:13~16에 의하면 마지막 날 땅에서 부활하는 의롭고 선택된 자들도 “영광의 의복”(제1에녹 62:15)을 입는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땅에서 부활하는 자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죽음에서 천상으로 올라간 순교자들을 묘사하는 상징적 표현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 했듯이 유대 묵시문학에서 천상에 있는 의인들이 천사와 같다고 묘사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부활하는 의인들을 천사와 같다고 묘사하는 두개의 상징이 일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2바룩서에 의하면 마지막날 다시 사는 의인들은 천사와 같

을 것이다(제2바룩서 51:10, 13).

이상의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에서 파악해 볼 때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 없는 영혼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삶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땅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하늘에서 확 수고대하고 있다. 그것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계 6:10)라는 탄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땅에서 순교한 그들의 순교의 피는 아직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피를 흘리며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살려 하늘에서 쉬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소아시아의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위와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4.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

하늘의 삶과 부활의 생명과의 연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신약성서 내의 또 하나의 표현을 우리는 엡 2:5~6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엡 2:5~6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라고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결과라는 언급이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천국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특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생과 하늘에서의 삶이 영혼의 불멸과 같은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고 다시 사는 삶, 곧 부활의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도 부활의 삶인데, 그 삶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엡 2:5~6의 내용과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삶이 부활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이 본문에서 하늘의 삶을 표현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5. 속사도 교부들

속사도 시대에 있어서 죽음에서의 부활과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사람은 이그나티우스(Ignatius)이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순교자들 처럼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의 부활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이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셨다”(IgnMagn 9:2).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사도들은 이미 아버지께 올라갔다(IgnPhld 9:1).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일어난다(IgnTrall 9:2).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동시에 육적이었다(IgnSm 12:2).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는 결코 몸이 없는 악령이 아니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에 의심을 품은 자들은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몸이 없어지게 되고 악령과 유사하게 된다(IgnSml 2~3:3).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몸이 없는 부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그나티우스와 더불어 이 시대에 눈에 띄는 죽음에서의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는 폴리카프의 순교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순교자 폴리카프(Polycarp)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됨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쇠하지 않게 하는 능

7) Ibid., p.182.

력 속에서 영혼과 육체를 갖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게 됨”(Pol 14:2)을 감사하고 있다. 폴리캅은 이 본문에서 부활이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활의 생명에 자신이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서들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육체적 부활이 마지막 날 이전 죽음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하나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전통은 이 보다 좀 후기의 문서인 주후 250년경으로 추정되는 피오니오스(Pionios)의 순교 행위를 보도하는 문서 속에서 발견된다. 피오니오스는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는 “빨리 부활하고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빨리 알리기 위함”이었다.⁸⁾ 피오니오스의 몸에 불길이 닿고 그의 몸을 태우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오니오스의 몸이 새로운 몸의 지체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오니오스는 고귀한 귀와 더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싱싱하게 자란 턱수염을 갖고 있었다. 그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너무나도 잘 생겨서 그는 젊은 청년 같았다. 불길이 그를 젊게 만들었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부활의 증거로 만들었다.”⁹⁾ 초대교회의 순교자의 신학은 순교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땅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얻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사상은 영혼의 중간상태에 익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받아들이기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거부감은 상당 부분 헬라의 철학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강력한 희망이 성서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서와 성서시대와 초대교회의 문헌 속에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상 역시 깊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유념해야 한다. 죽은 자들이 천상에서 새로운 육체로 살아 있다는 사상은 바울과 복음서와 족장들과 의인들에 관한 전승들과 초대교회의 순교자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8) Ibid.

9) Ibid.

II. 중간기와 역사의 마지막 날과의 조화

죽은 자들은 언제 다시 살며 부활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죽은 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가르침과 죽은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이 두개의 가르침은 모두 성서 속에 존재하고 있고 성서시대와 초대교회의 다른 문헌들 속에서도 유사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가지를 모두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이 두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죽은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하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상은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면 역사에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서와 성서시대와 초대교회의 문헌들 속에 이 두가지 가르침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마지막날 사이를 의미하는 중간기와 역사의 마지막 날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 보면서 바른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한다.

A.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잠들어 있다.

20C의 유명한 신학자인 쿨만(O. Cullmann)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잠들어 있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쿨만에 의하면 부활의 시기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다.¹⁰⁾ 그 이전에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잠들어 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쿨만의 견해는 죽은 자들이 이미 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수 많은 성서의 가르침(빌1:23~24, 고후 5:1~4, 히 11:6, 눅 23:43)과 충돌되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 보기 어렵다.

10) O. Cullmann, "영혼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전경연편역,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서울: 향린사, 1975), pp.12-47.

B. 유대 묵시문학적 세계관인 마지막날의 부활이라는 관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신약성서의 비신화화론으로 유명한 볼트만(R. Bultmann)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일어나는 표상은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적 세계관인데 이는 버려야 할 낡은 고대인의 세계관으로 이해했다. 볼트만에 의하면 이와같은 낡은 세계관과의 결별은 이미 사도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결별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보았다.¹¹⁾ 요 11:23~26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의 구절은 묵시문학적 세계관을 결별하는 요한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볼트만에 의하면 영생과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존적 결단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일어난다.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낡은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는 볼트만의 주장은 20c 후반부에는 카톨릭 신학자 로핑크(G. Lohfink)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로핑크는 오늘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신학자 중 한사람인데 그는 오래 전에 이미 신학자들은 묵시문학적 공간표상과 작별을 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궁극적 만남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¹²⁾ 그런데 정말 신학자들은 오래 전에 묵시문학적 공간표상과 작별을 고했을까? 볼트만 계열의 일부 신학자들은 작별을 고했겠지만 20c 후반의 신학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작별을 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몰트만(J. Moltmann), 판넨베르그(W. Pannenberg), 쿨멜(W. G. Kümmel), 쿨만(O. Cullmann) 등의 학자들은 묵시문학적 표상이 성서의 본질적인 가르침이고 마지막 날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선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묵시문학적 세계관과 작별을 고하는 것은 성서의 거의 절반을 잘라내어야 하는 무모한 시도일 것

11) R. Bultmann, *Das Evangelium des Johannes*(Göttingen: Vandenhoeck, 1952).

12) G. Lohfink, *Der Tod ist nicht das letzte Wort*(Freiburg: Herder, 1978); G. Greshake/G. Lohfink, *Naherwartung, Auferstehung, Unsterblichkeit*(Freiburg: Herder, 1982).

이다.

C. 죽음의 순간과 역사의 마지막 날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적 차이가 없고 한 순간이다.

죽은 자의 천상에서의 존재와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성서 속의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이중적 표상은 천상에서 존재하는 죽은 자들의 존재를 영혼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조화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성서의 인간 이해가 전인적 인간 이해이고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죽은 자의 존재를 영혼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20C의 대표적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K. Barth)와 에밀 브룬너(E. Brunner)는 이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순간과 역사의 마지막 날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적 차이가 없고 한 순간이라는 매우 특이한 관점을 제시했다.¹³⁾ 이 관점은 하나님의 영원은 초시간적 세계인데 죽은 자들은 지상적 시간의 세계를 떠나 초시간적인 세계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은 자와 역사의 마지막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동시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전15장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의 부활은 언급하고 고후5장에서는 죽음에서 경험하는 부활을 언급하면서도 아무런 모순을 스스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사고는 잘못된 사고이다. 왜냐하면 위의 사고는 오늘 죽은 자와 역사의 마지막 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재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오늘은 아직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완성은 같은 순간이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현재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위와같은 바르트와 브룬너의 사고는 성서적이라기 보다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특징이 농후한 사고이다. 지금 죽은 자들도 역사의 마지막 날을 천상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3) E. Brunner, *Dogmatik* III (Zürich : Zwingli Verlag, 1964), pp. 435-440 ; K. Barth, *Die Auferstehung der Toten* (München : 1924).

D. 죽은 자들은 완전한 육체성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다.

1979년 5월 17일 로마 카톨릭의 교리성은 종말론에 관한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¹⁴⁾ 이 언급은 카톨릭 교회 안에 복잡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영혼의 중간상태와 부활과의 관계에 대한 교리성의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교회는 죽음 이후에 영적인 요소의 실체가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사실에 굳게 서 있다. 이 영적 요소의 실체는 의식과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나(I)가 계속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이 중간기 동안에는 인간의 완전한 육체성은 물론 결여되어 있다. 이 중간기 동안의 영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교회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성서와 전통 속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카톨릭 교리성의 관점의 핵심은 세가지인데 첫째는 죽음 이후에 영적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데 이 영적 실체를 영혼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이 영혼은 헬라적인 영혼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영혼은 성서적 전통을 따라 인간으로서의 나(I)라는 존재의 계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식과 의지가 있다는 것과 셋째는 이 나(I)라는 존재로서의 영혼은 아직 완전한 육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애매한 것은 완전한 육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완전한 부활체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성이 없다는 뜻인지 육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육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불분명함은 카톨릭의 교리성 장관인 라쟁어(J. Ratzinger) 추기경의 종말론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를 부활의 삶이라고 표현했지만¹⁵⁾ 실제로 어떤 육체성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주저하면서

14) 이 교리성의 지침서에 대한 G. Greshake의 해설과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로 다음을 참고하라. G. Greshake/G. Lohfink, op. cit., pp.185-192.

15) 라쟁어에 의하면 중간기에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는 헬라적인 영육 분리의 개념에서의 영혼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이후의 육체성이 결여된 영혼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데에도 나타나고 있다. 완전한 육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카톨릭 교리성의 표현은 칼 라너(K. Rahner)가 질료가 있는 영혼 개념을 사용한 이후 육체를 가진 영혼 개념을 선호하는 카톨릭 내의 많은 사람들과 과거의 영혼 개념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봉책이 아닌가 추측된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의 교리성이 위와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카톨릭 교회 내의 논쟁이 진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레사케는 교황청의 라쟁어 추기경과 논쟁을 계속하면서 완전한 육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는 육체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 가르침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영혼에 육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부활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교황청은 과거와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영혼개념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육체성이 결여된 영혼으로서의 중간상태의 영혼 개념은 헬라적인 영혼 개념과는 차이는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헬라철학적인 요소를 깊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킨 영혼 개념은 육체성의 결여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성서적 전통에서 이탈해서 헬라화한 영혼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불멸의 존재인 영혼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친 영혼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육체가 없는 영혼 개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육체의 형상으로서의 영혼 개념은 그 속에 육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고 또한 육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헬라적 영혼 개념과는 구별되지만 그렇다고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용어로

이 아니고 “인간의 불멸”(eine Unsterblichkeit der Person, des einen Gebildes Mensch)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불멸성은 자신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불멸성이 아니고 창조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주와의 대화적 삶으로 초대된 불멸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쟁어는 이 불멸의 삶을 부활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쟁어에 의하면 부활은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고 죽음을 넘어 계속된다. 참고하라. J. Ratzinger, Einführung in das Christentum(München: KIsel Verlag, 1968), pp.289-297; Eschatologie~Tod und ewiges Leben(Regensburg: 1978).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육체 없는 반쪽 인간 개념은 성서에서는 매우 낮은 개념이고 성서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사용했던 영혼 개념 속에는 육체성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카톨릭 교회나 라쟁어와 매우 유사한 견해를 개신교 쪽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후크마(A. A. Hoekema)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후크마는 인간의 전인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서적 인간이해를 잘 전달하다가 죽은 자의 중간기의 상태에 대한 설명에 와서 갑작스런 분리를 주장하는 자기당착에 빠지고 있다. “비록 인간이 지금은 영-육 통일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통일체가 죽음의 때에는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¹⁶⁾ 후크마 역시 일시적으로 영-육이 분리된 인간의 죽음 이후의 존재를 영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모두 헬라철학의 강력한 영향력을 기독교 신학자들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인간 존재를 영혼으로 지칭하는 것이 헬라화되었고 오류이며,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육체 없는 별거벗은 영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헬라적이며 오류이며 비성서적이다. 고후 5:3에서 바울은 별거벗은 영혼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하늘의 육체를 덧입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E. 죽은 자들은 부활한 상태로 있으나 역사의 마지막 날의 지상으로의 부활과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은 죽은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두 본문의 희망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고전 15:51)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고후 5:1) 곧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하늘의 처소, 곧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16) A.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 367.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차이를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바울의 사상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와 고린도후서를 쓸 때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낙스(W. L. Knox)이다. 낙스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경험이 이 사상적 변화의 중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종말론이 상당히 헬라화 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로 바울이 몸을 벗어나 할 짐으로 생각하는 것은 명백히 헬라적이며, 둘째로 영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헬라적이고, 셋째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리하는 장막의 삶으로 생각하고 천상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헬라적인데, 넷째로 헬라적이지 않은 단 하나의 요소는 심판에 대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바울의 사상의 헬라화라는 결론은 대단히 무모한 결론으로 보인다.¹⁷⁾ 바울은 죽음에서 벗어났을 영혼만의 삶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반헬라적인 특징이고 용어상 문제가 되는 장막과 같은 용어는 바울의 사상의 헬라화라기 보다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랑하는 히브리인의 삶이나 장막절 같은 유대인의 절기와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¹⁸⁾ 장막절 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장막에서 지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차이는 바울의 사상의 근본적인 변천 혹은 헬라화라는 관점 보다는 바울의 기다림의 시각의 전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바울의 기다림의 시각의 전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곧 올 것같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기다림의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그의 육체가 늙어 쇠약해짐에 따라 죽음에서 맞이하는 천상의 소망에 그 기다림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바울 자신의 말과(고후 4:16)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소망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선 육의 몸과 신

17) W. L. Knox의 견해에 대한 훌륭한 비판으로는 W. D. Davis, *Paul and Rabbinic Judaism*(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pp. 310~314를 참고하라.

18) Ibid., p. 313.

령한 몸 사이의 대비이다. 바울은 육체와 영혼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바울은 고전 15:39~41에서 하늘의 몸과 땅의 몸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위의 성구에서 40절의 하늘에 속한 형체는 원어가 소마타(*σώματα*)이므로 하늘의 몸 혹은 하늘의 육체로 번역해야 한다. 이 번역의 정정은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여기에서 하늘의 몸, 곧 영과 몸과 땅의 몸 곧 육의 몸을 대비하는데 그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것은 자신에게 합당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별은 별대로 해는 해대로의 육체와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날 의인들은 하늘의 별과같이 되고 천사같이 된다(제2바룩 51:10)는 제2바룩서의 내용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육체를 지니고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은 땅의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옥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2~44). 바울은 여기에서 신령한 몸을 하늘의 몸으로 육의 몸을 땅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령한 몸은 하늘의 삶에 합당한 하늘의 몸인데 이것을 마지막 날에 입게 될 것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다. “무릇 흠에 속한 자는 저 흠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8~49). 바울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머지않아 올리게 될 마지막 나팔 때 얻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에 의하면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혈과 육(지상의 육체를 의미한)은 합당치 않다(고전 15:50).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인데(고전 15:54) 곧 썩지 않는 하늘의 육체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육체를 입고 변화 될 때에는 사망이 폐기되고 마침내 하

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고전 15:50)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것이라는 희망은 뒤로 물러가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점차 육체가 쇠약해지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인 그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삶은 결코 육체 없는 벌거벗은 영혼만의 삶이 아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하늘의 육체를 이번에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아닌 그의 죽음에서 얻게 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그에게 합당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 사이에는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소망인 죽은자의 부활의 두가지 다른 측면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부활체를 얻게되는 하나의 소망은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 부활체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날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죽음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과 역사의 마지막날의 부활체가 동일할 것이라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을 자세히 비교할 때도 뚜렷이 드러나지만 이미 예수와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설명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도 충분히 추정된다. 이 천사와 같다는 표현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의인들의 상태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또한 동일한 표현이 마지막 날 살아날 의인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천상에 있는 자들은 결코 육체 없는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천상에 있는 의로운자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지니고 있다.

죽은 자들은 천상에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곧 죽은 자들이 부활

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자들이 천상에서 부활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미 모든 구원은 종결된 것이 아닐까? 만일 그러하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성서의 희망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닐까? 위와같은 질문은 카톨릭 교회 내에서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논쟁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주장한 그레사케에게 이를 반대하는 라쟁어 추기경이 제기했던 질문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질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성서의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죽은 자들이 천상에서 부활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죽은 자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빌 1:23, 고후 5:8). 계 6:11의 흰두루마기를 입고 천상에서 쉬고 있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있다. 흰옷을 입고 쉴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계 6:10)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도 땅의 역사의 완성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약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역사의 완성이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역사의 완성은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희망이 아니고 이미 죽어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은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 모두가 희망하는 궁극적 희망이요 목표이다.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들이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쉬고 있는 것으로 역사를 마감시키지 않고 있다. 그들의 명예는 이 땅위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그들은 이 땅위로 살아돌아와야 하고 이 땅위에서 왕노릇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던 악과 죽음의 세력은 파괴 되어야 하고 사탄은 불못에 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을 가득채워야 한다.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살아돌아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의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다는 것은 지상적 시각에서 묘사한 표현이다.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은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은 자신들이 품고 있던 모든 자들을 내어 보낸다는 상징을 갖고 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마지막 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골 3:4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날 하늘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이사야의 승천 4:16에도 “거룩한 자들은 위 일곱째 하늘에 저장되어 있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 그들은 내려와서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유사한 비전이 존재하고 있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유대 묵시문학 가운데 죽은 자들은 지하의 어떤 방 혹은 어둡고 침침한 어떤 곳과 같은 곳에 있다는 표현들은 신약성서의 밝은 계시에 의해 근원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죽은 성도들은 낙원 곧 하늘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부활체를 입고 있다. 그들은 천사 같은 존재이며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지상으로 부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 지상으로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에서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은 지상의 사람의 눈에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의 구원은 땅 위에서의 구원의 완성과 합쳐져야 하고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랫동안 그 영광이 짓밟히고 훼손된 이 땅 위에서 빛나야 한다. 이 둘이 합쳐지는 날이 역사의 완성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회복시키는 날이다. 이 날이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결 언

카톨릭 신학자 크레머(J. Kremer)는 신약성서 속에 존재하는 부활의 3가지 차원을 언급했다. 첫째는 세례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둘째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셋째는 마지막 날의 부활이다. 세례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개신교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부활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육체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아간 사람들이다.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이어간다(요 11:25).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

은 하늘의 몸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벌거벗은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고후 5:1~4). 마지막 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기쁨이자 축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희망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은 성도들은 모두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도성은 땅 위에 자리잡을 것이고 부활과 불멸으로서의 하늘의 생명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